

# 전남대, 고성능 반도체 핵심기술 '패키징' 인재 키운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와 공동연구소 설립 실증 연구 등 수행  
데이터 처리 속도 높여 전력 감축…5극3특 국토 전략 구체화 사례

전남대학교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가 함께 구축한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가 공식 출범했다.

전남대학교는 12일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캠퍼스에서 전남대·앰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 현판식을 열고, 대학과 산업이 함께 반도체 후공정 핵심 기술을 연구·교류하는 산학협력 거점을 알렸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포장해 기기에 연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공정으로 여러 개 서로 다른 칩을 하

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이는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만 3606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설비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학자 패키징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과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 민형배 국회의원,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준기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소장, 김순중 전남대·앰코 반도

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대학·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남대·앰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는 고성능·고밀도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로 꿈틀하는 패키징 분야에서 실증 연구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산학협력 거점이다.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과 글로벌 기업의 산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연구 성과가 곧바로 산업 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동연구소에는 반도체 패키징 장비가 구축돼, 학생과 연구자들이 산업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구·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AI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AI 기반

지능형 공정 기술 공동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대학·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구소 출범은 지역 거점 국립대와 글로벌 기업이 협력해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현장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지역 인재의 정주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은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로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며 “광주에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앰코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학생들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실증 중

심 교육이 인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연구소는 앰코코리아가 축적해 온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경험과 전남대학교의 연구 역량이 결합된 협력의 장으로, 대학의 교육·연구와 기업의 산업 현장이 융합되는 새로운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남대학교는 공동연구소 현판식에 이어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진안 대표는 ‘AI 시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진화’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전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교육' 장관상 3관왕

다문화·북한배경학생 교육 성과  
2년 연속 우수…맞춤정책 효과 입증



전남도교육청이 '제17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과 '제16회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이주배경학생 교육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학생 부문에서는 순천매산중학교 이은정 양이 그리기 분야에서 '색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하트 모양의 심장으로 형상화해 마음으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표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식 개선의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평가다.

교원 부문에서는 영광백수중학교 김혜숙 교사

가 이주배경학생 지도사례 분야에서 '설리번처럼

한국어를 가르치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소통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형

지도로 주목받았다. 김 교사는 시상식 현장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수업 장면과 학생 변화

과정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또 순천삼산초등학교 육은희 교사는 북한배경 학생 교육 우수사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학습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지원한 포용적 교육 실천 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배출한 데 이어 2년 연속 우수 성과를 이어가며,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지원과 학교 현장 중심 다문화교육 정책의 성과를 입증했다.

전성아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앞으로 도 다양성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동강대 방사선학과, 취업 경쟁력 입증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교육과정 평가 4년 인증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방사선학과가 방사선사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질적 우수성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강대 방사선학과(학과장 류영환)는 최근 대한방사선협회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이 발표한 '방사선 교육과정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2025.11.27 ~ 2029.11.26)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은 대학의 방사선학 교육

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사선사 인재 양성에 적합한지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교육성과 등 6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동강대 방사선학과는 이번 교육과정 분야에서 4년 인증을 받고 교육 품질과 전문성 확보 등 방사선사 양성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게 됐다.

또 향후 전 분야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방사선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류영환 교수는 “이번 교육과정 인증 획득이 대학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방사선학과는 3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 후에는 병·의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직 공무원, 원자력 관련 기관, 방사선 응용기술 분야, 생명과학 분야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또 2025학년도부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총-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